

254개국 누비는 78개 기업들 “미래 개척”

세계 최대 시장 美·유럽 진출 활발
제약바이오협회 전방위 지원 주효
올해 일동제약 등 대거 'CIC' 입주
스위스선 유럽 진출 인프라 구축도



연구에 전념하는 국내 한 제약바이오 기업의 R&D시설 모습.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은 최근 몇 년간 양대 시장인 미주와 유럽 진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글로벌 무대를 향한 사업 다각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뉴시스

●보스턴·바젤에 해외진출 교두보 마련

최근 우리 제약바이오기업은 내수 중심에서 벗어나 글로벌 무대로 사업영역 다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78개 기업이 254개 국가에 현지법인, 연구소, 생산공장 등을 운영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양대 제약바이오 시장인 미주와 유럽 진출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우선 미국시장 진출의 경우 핵심 저점인 보스턴 바이오클러스터에 진출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보스턴 바이오클러스터는 전 세계 1000여 개 제약바이오기업이 입주해 7만4000개 이상 일자리와 약 2조 달러 이상의 경제효과를 내고 있는 세계 최대의 바이오 산업단지다.

우리나라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주축이 되어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의 미국 진출을 위해 보스턴 캠프리지 이노베이션센터(CIC) 입주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해 왔다. 현지 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해 온라인 컨설팅을 진행했고 성공적인 해외진출과 미국 의약품 시장 분석 등을 주제로 미국 관계자의 온라인 세미나도 열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LG화학, GC녹십자, 삼양홀딩스, 유한양행이 먼저 보스턴에 진출했고 지난해 하반기에는 대웅

제약, 웰트, 팜캐드, 한미약품이 협회 지원으로 CIC에 입주했다. 올해는 JW중외제약, 오가노이드사이언스, 일동제약, 삼일제약 등이 진출을 준비 중이다. 이외에 2~3개 기업들이 추가로 CIC 입주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1월 25일에는 한국제약 바이오협회가 보스턴 총영사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과 국내 기업들의 보스턴 바이오클러스터 진출을 위한 민관 협력 시스템을 구축했다.

유럽시장은 스위스의 산업도시 바젤이 국내 기업의 전진기지로 자리잡고 있다. 스위스는 노바티스, 로슈 등 글로벌 빅파마 기업이 있는 유럽의 대표적인 제약바이오 강국이다. 국내 업체는 스위스를 중심으로 현지 네트워크를 구축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1월 24일 스위스 바젤 투자청과 헬스케어 엑셀러레이터 바젤론치 파트너십 협약을 맺었다. 바젤론치는 주정부부 계약사, 스타트업 등과 파트너십을 맺고 투자, 네트워킹 기회 및 사업 자문 등의 폭넓은 지원을 제공하는 헬스케어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이다.

이번에 마쉴 투자청과 맺은 파트너십 협약은 유럽에 진출하려는 한국기업에 특화된 지원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대중제약, 유한양행, 일동제약, 종근당, 한미약품 5개사가 참여해 3년 동안 글로벌제약사·바이오텍 등과의 네트워킹 지원, 원료의약품·완제의약품 바이어 물색 지원 등의 혜택을 받는다.

●美·日 등 제약바이오 파격 지원

한편 각국도 제약바이오 산업을 키우기 위해 적극 지원하고 있다. 미국은 국립보건원(NIH)을 중심으로 국가 R&D 예산 총액의 23%를 제약 바이오 분야에 집중했다. 기업들이 신약 개발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덜고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미국은 이번 코로나 팬데믹에서 최자자과 모더나에 20조 원을 초고속으로 지원해 백신을 개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일본도 2015년 제약바이오 분야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의료연구개발기구(AMED)를 설립해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던 의약품 R&D 예산과 연구관리 기능을 통합했다.

유럽의 작은 나라 벨기에에는 제약바이오에 국가 R&D 예산 중 무려 40%를 투자하고 있다. 또한 R&D 인력의 원천징수세 및 특허세 80%를 면제하는 혜택을 제공해 내수(14조)의 4배에 가까운 52조 원대 의약품 수출을 하고 있다.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이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러한 해외 국가의 지원 못지않은 범정부차원의 지원정책이 절실하다. 이와 관련해 원로목 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에 대해 대통령 직속 전주기 육성·지원 컨트론타워인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설치, 현 14.6%인 정부의 R&D 예산 지원율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고 정부 주도 5조 원 메가펀드 조성, 백신주관·제약주관 확보를 위해 백신신바이오펀드 조성과 백신가격 현실화, 원료의약품 자급률 제고를 위한 종합지원대책 등을 강력히 요청했다.

원 회장은 “제약바이오 산업은 정부의 과감한 육성과 지원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비약적 성장이 불가능하다”며 “올해는 그동안의 역량 강화와 에너지 축적을 바탕으로 제약바이오강국으로 도약하는데 강력하고 단단한 추진동력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gna.com

양방향 척추내시경, 흉터·통증 적고 회복 빨라

건강올레길 | 우리동네 주치의의 건강학

생활형 질환이 되어버린 척추질환은 일상생활에서의 상당한 불편함과 통증을 호소하기 때문에 서둘러 치료가 필요하다. 척추질환은 한번 발병하면 완치가 힘들고 재발의 위험성도 있어 안전하고, 완벽하게 치료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기존의 척추 수술은 환부가 잘 보이도록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절개 부위가 컸던 만큼 출혈과 감염의 위험이 컸고, 상처와 재합 등 회복이 오래 걸렸다. 때문에 고령이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들은 수술에 대한 부담이 컸다.

양방향 척추내시경은 이런 환자들에게 정상조직의 손상이 거의 없는 비수술적 척추 치료법으로 각광 받고 있다. 5mm의 작은 구멍 두 개를 내어 한쪽에는 초고화질 내시경 카메라를, 다른 한쪽에는 수술기를

삽입해 협착된 부위를 넓혀주고 돌출된 디스크를 제거한다. 실시간 영상을 확인하며 직접 병변을 제거하고 치료할 수 있어 정확도를 높였다.

미세한 절개로 시술해 출혈이 거의 없고 부분 마취여서 고통 환자와 만성질환자도 수술이 가능하다. 흉터와 통증이 거의 없기 때문에 회복과 일상으로의 복귀도 빠르게 이뤄질 수 있다. 이와 같은 장점들과 안정성으로 양방향 척추내시경은 현

재 최소 침습 수술의 대표적인 방법으로 자리 잡았다.

양방향 척추내시경은 흔히 디스크라 불리는 추간판탈출증, 척추관협착증, 척추전방전위증 등 대부분의 척추질환에 적용된다.

주사, 약물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로도



연세고든병원

최현민 병원장

서울대병원 주도 '의료 메타버스 연구회' 출범

서울대 의과대학 메타버스 랩과 서울대병원 혁신의료기술연구소 스마트ICT연구실의 공동 후원으로 '의료 메타버스 연구회'가 1월 27일 공식 출범했다. 확장현실(XR) 및 메타버스 기술과 서비스를 통해 의학적 장애나 질병의 예방, 치료, 관리의 학문적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관련 학술적, 기술적, 제도적 연구조사를 수행하고 연구발표회 및 강연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민관, 산학 협동 활성화를 지원하며 교육연수 사업과 국제적 학술교류를 통해 의료메타버스 전문가 양성의 틀을 다질 계획이다.

편집 | 한민규 기자 stopspe@donga.com

오늘의 날씨

3일(목)

서울

0/20



-7

0

인천

0/20



-6

-1

춘천

0/20



-11

1

강릉

0/0



-4

5

대전

20/20



-7

3

전주

20/20



-3

3

광주

30/20



-2

5

대구

20/20



-3

5

부산

20/20



-1

7

창원

20/20



-3

6

제주

20/20



4

7

지역

강수 확률
(오전·오후)

최저

날씨

최고기온℃

스포츠동아 The sportsdonga 제375호

발행인·편집인 이인철 편집국장 연재호 사업총괄 김상수 광고국장 이복호

편집부장 안도영 스포츠부장 정재우 테라데인먼트부장 이정연
 산업경제부장 양병호 사진부장 고종철 인쇄 중앙일보사

광고문의 02-361-1612 구독신청 1588-2020 FAX 02-361-1617

www.sportsdonga.com (우) 0337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9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제2간) 2008년 3월 2일자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한달 12,000원, 1부 700원

대표전화 02-361-1611 부도: 무료 02-361-1616 sol@sportsdonga.com